

고등학생 음주와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

전 은 경
(한국교원대학원)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음주행위수준과 건강증진행위수준을 파악하고 음주행위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배경변인으로 개인의 인구학적특성과 가족·사회적 특성, 독립변인으로 음주행위와 음주태도, 건강증진행위를 포함하여 총 5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대상은 2004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개지역의 인문계고와 실업계고 중 무작위로 추출한 남·여 고등학교 5개교 학생이다. 총 400부를 배부하고 378부를 회수하여 불성실응답 16부를 제외하고 362부를 최종 통계자료로 활용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로 각 변인들의 빈도분석과 배경변인과 건강증진행위, 음주와 건강증진행위관련성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결과 음주행위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의 결과에서 남·여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음주요인이 서로 차이를 보였으나 남녀모두 두변인간에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남학생의 경우는 음주빈도가 여학생의 경우는 현재음주가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남·여학생 모두 음주동기 및 음주친구에서에 대한 질문에 응답했듯이 집단의 귀속감과 공동체의 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유추할 수 있었다. 집단의식과 제례의식 공동체문화의 산물로서의 음주행위, 즉 관계의 중요성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서의 술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음주행위는 차후 문제음주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고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왜곡된 공동체적 문화적 요소로서의 음주행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스스로 음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응력을 길러주도록 하기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율성 신장에 있어서도 우리문화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집단의 소속된 개인으로서의 공동체적 자율성을 넘어서는 다원성을 인정하는 개인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관련 교과와의 연계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